New Normal (새로운 정상의 생활화)

이것이 얼마만인가?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일을 만들고 말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만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던 지난 7개월이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더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살아야 했고, 산불로 인하여 8일간 담요에 덮여서 생활하는 것 같이 지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우울 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말이다. 이파리가 새로 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혼란과 우울한 가운데에서도 벌써 단풍이 물들고 있었던 것이다.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의 생활화)에 맞출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에 한 가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 과연 New Normal 인가?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던 그것이 혹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되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악수도 못하며 같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마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을이 찾아와서 단풍이 드는 것과 같다.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상적이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 중심, 진실, 참회의 눈물, 사랑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회개, 말씀, 은혜, 순종, 새로움, 무릎 꿇음, 헌신이라는 말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7개월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위하여 우리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전에 것을 되돌려 놓는 "정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이고 헤어지자. 그것이 우리를 이 세대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는다.

다음 도주 동안 마음껏 단풍이 들텐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껏 물들고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껏 물들 수 있도록 마음을 청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